

“편애 하시는 하나님”

창20:1-18

아킬레스(Achille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그리스명 아킬레우스)입니다. 그의 어머니인 테티스는 제우스에게 아이를 불사신(不死身)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제우스는 아이 몸을 스틱스 강에 담그면 칼과 창도 뚫지 못하는 강철 몸이 된다고 알려주었고, 테티스는 이에 아킬레스의 발뒤꿈치를 잡고 강 속에 몸을 담그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킬레스는 어떠한 강철로도 뚫지 못하는 초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손으로 잡고 있어 강물이 닿지 않았던 발뒤꿈치는 그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되었고, 트로이 전쟁에서 연승을 거두던 아킬레스는 결국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쏜 독화살을 발뒤꿈치에 맞고 숨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치명적 약점을 뜻하는 '아킬레스건'이 유래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치명적인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아내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처음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왔다가 가뭄으로 인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애굽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까스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똑 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편애하는 것처럼 아끼시고 회복시키시며 축복하고 계십니다.

1.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더 성숙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험을 더 하기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전문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인격적인 성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외적으로는 교양 있어 보이고 젊잖아 보여도 속으로는 노욕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야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을 때 본질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2. 편애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 들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번도 아니고 계속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똑 같은 죄를 계속 지어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편애라고 느낄 정도로 그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편애에 대해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가정의 자식이 객관적으로 훌륭하더라도, 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 받고 보호 받고,

사랑 받는 까닭은 ‘택함을 받았다’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녀는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실수 많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사랑에 근거되기 때문입니다. “(창 20:14,16)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택한 자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 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왜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1) 약속의 말씀

“(창 12:1-2)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것은 바로 사라를 통한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라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때에 쓴 편지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단 25 센트 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는 본국에서 오는 헌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위대한 선교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믿음의 배짱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자녀이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낙심될 만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 유익하게 인도하신다고 믿는 존재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2) 택한 자의 기도

“(창 20:17-18)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단히셨음이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지 아니하면 배후에 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E. M. 바운즈(E. M. Bounds)는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기도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떨게 된다.” “오직 주님 만이 산들을 옮기실 수 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교회사 학자들은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펀전을 ‘설교의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활자화된 3 천 561 편의 그의 설교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 세기가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879 년 8 월 어느 주일에 스펀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메트로폴리탄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본교회 교인들은 다 밖으로 나가고 처음 온 사람들을 앉히니까 숫자가 무려 6 천명이었습니다. 즉 새가족 6 천여명이 설교를 들으러 온 것입니다. 신문기자들이 스펀전 목사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이것 어찌된 일입니까? 런던에 교회가 많은데 유독 이 교회만 구름떼 같이 모이는 것입니까?” 스펀전 목사님이 기자를 지하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400 명의 교인들이 기도실에서 스펀전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해달라고 통성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우리 교회 엔진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밑에 400 명이 설교할 때마다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의 승패는 배후의 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고 총명하고 수단과 방법과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운명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3.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도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역사상 우리가 볼 때 가장 악한 일이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최악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은 최악 속에서 최선을 만들어 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선악 간에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중국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한 분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통역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통역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깨어보니가 한쪽 팔이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한쪽 팔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팔을 주어서 잘 살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게 때문에 내 한쪽 팔을 가지고 가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후 중국선교사를 은퇴하고 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자원해서 한국 선교사로 나왔는데 그때가 6.25 사변 때였습니다. 6.25 사변 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군인들과 많은 평민들이 팔과 다리를 잃었지만 의수족에 관한 시설과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팔을 잃고 난 다음 미국에 건너가서 자기 팔을 의수족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재활병원을 시작해서 팔, 다리를 만들어서 한국 상이군인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예수를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팔, 다리 잃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에게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비로소 의족과 의수를 만드는 한국 최초의 재활의학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팔을 잃은 아픔과 고통을 체험한 토레이 목사만이 이러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여러분의 가정이 시작 될 때, 혹은 사업이 시작 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과정의 어려움과 실수를 포함하여)
3. 편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모의 자식 사랑’으로만 설명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편애하심’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4. 최악의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주십시오.
5. 이번 ‘재정 부흥회’와 ‘영적지도력세미나’를 통하여 은혜 받은 것과 결단한 것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